고령화, 저금리 시대의 노후 대비 - 은퇴 설계

김 미 성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reddiver@mylp.com, 016-435-3290)

최근 전철이 천안까지 개통되면서,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다. 특히 여름과 겨울이 되면 냉방과 난방이 잘되는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2~3시간 전철을 타고 천안에서 간단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2~3시간을 전철에서 보내며 상경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의 탑골공원이나 광화문 교보문고에서도 천안에서 전철을 이용해서 올라온 노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기에 시간 보내기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를 이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에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한 대한민국은 21세기 들어서 고령화에서도 세계 제1의 속도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달리 과거 아버지세대의 경우, 비교적 정년이 60세 전후로 보장되었으며, 은퇴 이후의 생활기간이 15년 전후가 대부분이였다. 그리고 5~6명의 자식이 있어서 그 중 한 명이라도 잘 되면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은행의 금리도 10% 이상이라 목돈을 맡겨두면 이자로 노후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런 과거와 달리, 고령화, 저출산, 저금리의 시대에서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 행복한 노후를 맞기 위한 은퇴설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은퇴 시점을 정하는 일이다.

은퇴시점은 과거에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일 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장인은 60세, 공무원은 62세, 자영업자들은 65세라는 식의 획일적인 정년이 아닌, 자녀를 위한 수입활동이 끝나는 시점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인생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시점 등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비를 정하는 일이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은퇴이전의 생활비의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의료비와 경조사비용이다. 은퇴이전과 달리 의료비의 경우 은퇴 이후 생활비의 많은 비중이 차지하며, 특히 사망이전 2~3년간 막대한 간병비를 필요하게 된다. 다음 표는 노인부부 기준 기본 생활비의 수준을 알려준다.

[노인 부부 기준,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비 : 월 128만원]

기초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 교통비 · 의료비 · 교육비, 컴퓨터, 문화시설 관람료 등	669,000원
여유생활비	용돈, 교제비, 경조사비, 여행 경비, 품위 유지비 등	611,000원
계		1,280,000원

▶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타에서 5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월평균 노후생활 필요자금이 128만원으로 나타남.

기본 생활비에 여가생활과 표준적인 의료비 지출비용을 더한 표준적인 생활비는 월 200만원, 그리고 다양한 취미활동이 가능한 풍요로운 생활비는 대략 월 2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세 번째, 은퇴 기간을 정하는 일이다.

은퇴시점부터 향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로 많이 쓰이던 방식이 전체 인구 중 해당 연령자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를 통계화한 평균여명을 적용하는 평균여명 방식이다. 하지만 평균여명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람의 수명은 평균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는 것과 평균여명이 과거 경험치에 미래 수정치를 가미해서 조정한 숫자이기는 해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퇴 기간은 현재의 평균여명보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네 번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먼 미래에 대한 대비이므로 그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 동일하게 보전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때 미래에 대한 화폐가치는 항상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의 10만원이 10년 후에도 10만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72의 법칙을 활용하면, 대략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4%정도로 예상했을 때 18년 후에는 물가가 두 배로 뛰게 되고 화폐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72의 법칙 – 일정한 이자율에서 자산이 두 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법칙
예) 72 ÷ 4 = 18 → 4% 이자율일 때 18년이 지나야 두 배가 된다.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요소를 기준으로 은퇴필요자금을 구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현재 42세인 양돈 농가 김씨부부 월 200만원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1. 은퇴시점 – 60세
2. 노후생활비 – 표준생활비 수준 월 200만원 (기초생활비, 차량유지비, 병원비, 여가활동비 등)
3. 은퇴기간 – 30년(60세부터 90세까지)
4. 물가상승률 – 4%

계산해보면, 월 200만원×12개월×30년=7억 2천만원

물가상승률 4%에 72법칙을 적용할 경우 60세에는 자금의 가치가 2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7억 2천만원의 2배가 필요하다. 즉 14억 4천만원이다.

이상으로 은퇴설계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살펴보았다.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에서 은퇴시점에서 준비될 수 있는 자금을 빼면,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이 된다.

□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노후자금 =
은퇴시점에서 필요한 총 노후자금 – 은퇴시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총 준비자금

※은퇴시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총 준비자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은퇴용 금융자산 + 은퇴용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양돈 농가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은퇴용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8억이 은퇴시점에 준비될 수 있다면, 14억 4천만원에서 8억원을 뺀 6억 4천만원이 은퇴시점에서 부족한 노후자금이 된다.

은퇴설계는 장기간의 계획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노후 생활에 따른 비용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바로 평생을 같이할 건강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나만의 일, 친구와 가족, 그리고 취미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이다.
- 지금 당장 시작하라
-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라
- 배우자와 함께 계획하라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라
- 국민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 생활비는 연금으로 준비하라
-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라
- 재무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라
- 거주용 부동산은 남겨두라
-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지속하라

행복한 노후생활은 젊은 날 열심히 살아온 양돈농가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생활이다. 긴 안목으로 치밀한 은퇴설계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이다.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 재무설계를 원하시는 양돈농가들을 위해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 분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양돈